

활동성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방안 연구

강정식* ·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수리기술학과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란 ‘Crime Protec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영어 두문자어로 우리말로는 일반적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사전에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요소를 이용한 방어적 설계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발생기회 및 두려움을 줄여주며, 안전감을 유지하고, 나아가 범죄를 예방하는 개념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5가지 기본 원리는 첫째,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둘째, 접근통제(access control), 셋째, 영역성(territoriality), 넷째, 활동성 활성화(증대)(activity support), 다섯째,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이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1, 2, 3세대로 나뉜다. 박현호(2017)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의 “1세대는 물리적 환경 개선(조경, 조명, 블록거울, 잠금장치, CCTV 등 개선), 2세대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물리적인 기법과 제도의 결합,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확보, 사회적 유대, 주민 참여행정 등), 3세대는 친환경-하이테크 기술 중심(스마트 첨단 정보통신기술 접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에 관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연구로 신의기는 “문화재는 보존해야 하는 과거의 유산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림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문화재는 보존과 함께 활용을 통해서 현재의 사람들이 이를 누리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따라서 보존과 관리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활용이 중요하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설계는 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05년 낙산사 화재, 2008년 승례문 사건 이후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재난안전관리에 CCTV 및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가고 있으나, CCTV를 통한 범죄예방에 집중하고 있고, 문화재가 훼손된 후 범인을 찾는 방식으로 인해 예방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는 문화재재난안전관리에 범죄예방설계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기법과 제도적인 장치만을 적용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행정 결합형의 모형을 이용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시도한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문화재 정비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도입해야할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모형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지는 최근에 정비가 이루어진 아산시의 온양 어의정(문화재자료 제314호),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보물 제537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문화재 정비의 한계 및 문제점

문화재 정비 및 활용의 기본이 되는 문화유산 현장을 보면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주위 환경과 함께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되며,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우고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1)』에서 문화재수리의 목적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는 것”이며, 기본원칙으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 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문화재 정비는 원형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개입과 변경에 국한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재난안전관리는 정비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만, 범죄예방환경설계에 대한 항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정비와 안전관리는 분리되지 않아야 하며,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진정성 확보, 주위 환경 난개발로 인하여 일어나는 범죄로부터 보호, 문화재 활용 수요 증가를 위해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가 문화재 정비 시점부터 도입되어야 한다.

2.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특징 및 요소

문화재는 불특정다수의 이용객들이 관람하며 이용하는 공공재적인 성격 및 다중이용시설이다. 또한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활용은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전환에서부터 시작된다. 인식 전환은 활동성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재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방법은 문화재 정비 시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활동성의 강화가 될 수 있다.

문화재 정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정비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요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개방적이고 정돈된 환경(접근통제, 영역성)의 조성
- 나. 지역 커뮤니티 강화(활동성 활성화)
- 다. 지역 자연감시 영역성의 강화(자연적 감시)
- 라. 유지관리

III.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이용한 문화재 정비결과

1. 정비모형 1: 커뮤니티의 활동성 활성화

온양 어의정(문화재자료 제314호)은 담장 및 최소한 출입구의 존재로 개방적이지 않은 환경이었다. 화장실이 어의정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밝지 못한 조도 및 취객으로 인해 야간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어의정 내에 CCTV 및 경찰의 순찰이 있었으나, 큰 실효성은 없었다.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도입 결과, 첫째, 담장 정비, 화장실 철거, 포장 및 수목 정비를 통해 개방적이고 정돈된 환경을 조성하였다. 둘째,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였다. 셋째, 지역 주민 단체에 관리에 위탁을 주어 자연 감시 영역성을 강화하였다. 넷째, 기존 조명을 수리하여 조도를 개선시켜 주었으며, 경고안내판의 설치 등을 통해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정비 및 관리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실시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관리단체의 주기적인 관리 및 행사로 커뮤니티의 활동성이 활성화되었다.

2. 정비모형 2: 커뮤니티의 자연감시 강화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보물 제537호)는 주변 지형보다 낮고

주변 환경의 불량으로 개방적이지 않은 환경이었다. 석조문화재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CCTV 설치 등의 재난안전관리도 미흡하여 락카로 고의적 훼손(낙서)이 되었다.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도입 결과, 첫째, 정비구역 확대, 포장 및 수목 정비를 통해 개방적이고 정돈된 환경을 조성하였다. 둘째,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강화하였다. 셋째, 지역 주민 단체 관리에 위탁을 주어 자연 감시 영역성을 강화하였다. 넷째, 경고안내판의 설치 등을 통해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정비 및 관리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를 실시하였다. 정비 시 물리적인 감시 장치인 CCTV는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에 의한 자연감시 강화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IV. 결론

두 가지의 도입모형을 중심으로 문화재 주변정비를 통한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시 문화재 정비에 따른 활동성 강화가 가장 필요한 요소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활동성 강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의 자연적 감시가 증대되면서 범죄의 예방환경을 강화하는 것이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 결과는 관리단체와의 정비 전후에 관한 것으로 추후 이용 후 평가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참여활동의 변화와 인식, 범죄예방효과 등의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 정비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도입되기 위한 문화재 정비 지침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비모형에서 제시한 문화재는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문화시설/근린공원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기에 모든 문화재에 적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문화재는 공공성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관리단체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부처에서는 정비수립방안에서부터 주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대화 및 정비 계획에 대해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피드백이 필요하다.

문화재는 정비를 하여 보는 것만이 아닌 이용·활용이 중요한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를 마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며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부터 관리까지 관리단체 및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2013)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2. 국토교통부(2013).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 조성 유지 관리 기준.
3. 국토교통부(2015). 범죄예방 건축기준.
4. 김충식(2015), 목조 건축문화재의 범죄예방환경설계 평가지표에 대한 기초연구", 문화재 48(3): 4-29.
5. 김충식(2017), 3D 시각노출도를 이용한 문화재 범죄예방환경의 평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1): 68-82.
6. 박경래, 정영오, 김걸, 박현호, 홍경구(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 박진희, 황용섭, 박성룡(2014) 주거환경 취약구역에서의 제3세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략. 15(5): 251-261.
8. 박현호(2017), 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와 범죄과학.
9. 신의기, 신의기, 강용길, 강석진, 박현호(2011)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IV): 공원 및 문화재 관련시설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아산시(2015)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정비공사 실시설계.
11. 아산시(2016)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정비공사 준공보고서.
12. 아산시(2016) 온양 어의정 정비 실시설계.
13. 아산시(2016) 온양 어의정 정비 준공보고서.
14. 윤관중(2015)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진은미, 김장석, 유예나(2016)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있어서 환경시설물 디자인의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7(3): 539-552
16. 한국셉테드학회편찬위원회 위음(2015) 셉테드(CPTED) 원리와 운영관리.
17. 한국셉테드학회편찬위원회 위음(2015) CPTED셉테드: 범죄예방설계.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셉테드 이론과 실무1.